

# 군산 고군산군도에 해상 케이블카 추진

### 신시도~무녀도 잇는 국내 최장 4.8km 노선 사업 서해안 한눈에 조망...2024년 6월까지 선보일듯

군산시 고군산군도 일대에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신시도~무녀도를 잇는 4.8km 노선(안)이 가장 유력한 노선으로 검토됐다고 2일 밝혔다.

이 노선이 확정되면 국내 케이블카 노선 중 최장으로 운행시간은 17분 가량(편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2022년에는 실시계획 및 궤도사업 인가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장 새만금 해상 케이블카는 추진이 순조로우면 2024년 6월쯤 선보일 것

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군산시는 시민참여와 인허가 등 행정을 지원하고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법인 설립, 관련 용역 등을 맡는다.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수익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호텔·리조트 등 거점형 관광시설과 연계해 새만금 관광 인프라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군산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 조감도.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작은 섬들이 천혜의 경관을 선사하는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며 "호텔, 리조트 등의 거점형 관광시설과의 연계 개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순창군, 주민과 온라인 소통 '앱' 본격 가동

### 군정소식·제안사항·미담사례 등 양방향 전달 가능

순창군이 새해를 맞아 주민과 온라인으로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순창 소통 앱' (사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군은 그동안 순창 소통 앱을 자체 개발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고 읍면 이장 회의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보급 및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이 앱의 주요 기능은 군정 소식 등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복잡한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불편사항, 제안사항, 미담 사례 등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원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민원 담당 공무원과 전화 연결이 가능해져 그동안 담당자를 찾는 데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 소통 앱 사용을 원하는 주민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군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유진섭(가운데) 정읍시장이 운행 시작을 시작한 전기저상버스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 정읍시, 전북지역 최초 전기 저상버스 운행

정읍시가 전북 지역 최초로 전기저상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50인승 전기 저상버스는 277번과 277-1번 버스가 주행하는 정읍 시내 순환 구간에 투입돼 하루 7~8회 운행된다.

전기버스는 노약자와 장애인, 임신부

등을 배려하는 저상버스로 제작됐다.

특히 일반버스와 비교해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현저히 적어 승차감 개선으로 승객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 할 전망이다.

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대기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기존 경유를 연료로 운행하는 버스와 비교해 연료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전기버스 보급을 시작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한의약적 방법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난임시술 효과 증대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다.

시는 익산시한의사회와 협력해 기질적 인 이상이 없는 난임 원인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자는 한방난임치료 한의원에 서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한약제 복용 및

침·뜸 등의 한방요법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정부 난임 지정 시술기관이나 익산시 지정한의원(7개소)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오는 2월 12일까지 익산시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소원을 말해봐'

### 남원시, 한부모가족 사업 추진 양육비·임대료·학원비 등 지원

남원시가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소원을 말해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해 가족여행 경비, 반찬 구입비, 고등학생 학원비, 가족사진 촬영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8월 지역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서비스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여행, 학원비, 반찬지원, 가족사진 촬영비, 임대료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원을 말해봐' 사업을 구성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될 예정이며, 5가지 서비스 중 원하는 프로그램 1개 선택하면 1가구 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고창문화관광재단 현판식...역사문화관광도시 첫 걸음

고창문화관광재단이 현판식과 함께 달을 올리고 역사문화관광도시 고창을 만들기 위한 힘찬 출발을 했다.<사진>

지난 31일 열린 현판식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군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재단임원, 고창문화원장, 한국예총고창지회장,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사장, 고창농촌관광팜팜사업단장 등 지역문화예술계 인사 30여명이 참여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출범해 각종 공모사업 전략 수립과 문화예술관광단지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재단은 사무국과 3개팀(문화경영지원, 문화살려, 생태관광)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군민의 창조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

한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생애주기 및 생활영역에 맞춘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군민 스스로가 문화향유를 넘어 자기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단 이사장인 유기상 고창군수는 "재단 출범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자신의 활동에 집중하고, 국내외의 관광객들은 품격 넘치는 고창의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며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지역문화의 발전과 관광진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